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8장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산상설교』 상권 제18장, 인쇄 238~251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7~19 (20절까지 내다봄)

> ❓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면, 구약의 율법은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세운 두 원칙을 이어받아,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먼저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오순절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보인다. 이어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으셨으며, 제사 제도의 모든 모형을 이루셨다고 말한다. 그 성취는 성령을 통해 신자 안에서도 계속된다. 그다음 의식법과 민법은 성취되어 끝났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정리한다. 끝으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는 오류와 은혜를 핑계로 율법을 버리는 오류를 함께 물리친다. 그리고 19절의 “행하며 가르치는 자”로 결론을 맺는다.

📜 절별 정리

📜 1.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선지자의 예언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부터 다룬다.
출발점은 베드로후서다. 늙은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변화산에서 들은 영광의 음성까지 꺼낸다. 그런데도 자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리켰다. 구약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것을 보는 일이 가장 강한 믿음의

이루어졌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세속의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는 편견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실제로 말한 것을 보지 못했다. 로이드 존스는 신약만 따로 인쇄해 내는 관행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방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구약이 없으면 히브리서 같은 책은 이해할 길이 없다.

1. 예언 성취는 믿음의 가장 강한 보루다
2.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3. 유대인은 편견 때문에 예언을 잘못 읽었다
4. 구약도 복음으로 가득하다
5. 구약과 신약은 성령이 묶어 놓은 한 책이다

> **베드로후서 1:17**
> 변화산의 영광의 음성: 베드로의 직접 체험
>
>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 **베드로후서 1:19**
>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 **고린도후서 1:20**
>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는 총괄 진술
>
>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 **이사야 42:3**
>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메시야의 성품 예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53:3-5

메시야의 인물됨과 고난이 미리 그려짐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22:16-18

십자가 사건이 문자 그대로 정밀하게 예언됨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도행전 2:16

베드로가 오순절을 요엘 예언의 성취로 선언함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구약성경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 2.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

이제 율법의 성취로 넘어간다. 첫째,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보다 무한히 높으신 영원한 아들이 율법에 종속된 자리로 오셨다. 이것은 성육신의 중요한 진리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 아들을 율법 아래 두셨을 때만큼 율법의 불가침성과 절대성이 분명히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세밀한 항목까지 순종하셨다. 또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확립하셨으며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아무도 그에게서 잘못을 찾거나 고소할 수 없었다. 탄생부터 생애 전체까지 그분은 율법에 종속되어 계셨다.

1. 율법 위의 아들이 율법 아래 오셨다
2. 이것이 율법의 절대성을 가장 크게 보여 준다
3. 세밀한 항목까지 순종하셨다
4. 율법을 가르치고 확립하셨다
5. 아무도 그를 고소할 수 없었다

> **갈라디아서 4:4**
>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성육신의 진리
>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 **마태복음 5:17**
>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선언
>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마태복음 5:18**
>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율법의 영속성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이드 존스는 율법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말한다. 그는 잘못된 두 견해를 먼저 물리친다. 하나는 감상적 견해다. 십자가의 비극에 그저 우는 태도로, 주님이 꾸짖으신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다. 다른 하나는 도덕 감화설이다.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이 둘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에 대해 율법이 정한 형벌, 곧 죽음을 자기 몸에 받으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신 형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면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형벌이 그리스도의 흠 없는 몸에서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레위기와 민수기의 번제물, 희생제물, 장막, 제단, 놋대야, 진설병, 대제사장 제도를 모두 이루셨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라고 권한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희생이시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 피를 바치심으로 의식법을 전부 성취하셨다.

1. 율법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른다
2. 십자가는 눈물의 비극이 아니다
3. 단순한 도덕적 감화도 아니다
4. 율법이 정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5. 제사 제도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 **누가복음 23:28**
>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우는 태도에 대한 주님의 꾸짖음
>
>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 **로마서 6:23**
> “죄의 삯은 사망”: 율법이 선언하는 형벌
>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벌 집행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한 방식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결국 율법의 관점에서만 최종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4.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심

로이드 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율법을 성취하신다. 근거는 로마서 8장 2-4절이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데 묶는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속죄로 율법을 이루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일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여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굴복하기를 원하며, 그럴 능력도 받았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히브리서 8장이 기뻐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법은 바깥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 새겨진다.

1. 성취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2.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다
3.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4.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을 사랑한다
5. 새 언약은 법이 마음에 새겨진 관계다

로마서 8:2-4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 안의 율법 성취를 연결함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레미야 31:33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10

새 언약 약속의 인용과 그에 대한 기쁨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 5. 의식법·민법·도덕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로이드 존스는 “율법과 선지자의 위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한다. 선지자의 예언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질 것도 남아 있다.

율법은 셋으로 나누어 본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는 지키셨고 제자들에게도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전부 성취되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결국 성전도 무너졌다. 그리스도를 나의 제단이요 제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레위기 의식에 묶여 있는 셈이다. 민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사람 사이에 늘 있어야 할 영원한 관계를 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큰 계명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신자에게도 죄는 여전히 “법을 어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한다. 다니엘서의 돌처럼 그 나라가 마침내 온 땅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자는 율법의 정죄 아래 최후 선고를 받을 것이다.

1. 의식법: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성취됨
2. 민법: 신정국가가 끝나 성취됨
3. 도덕법: 오늘도 세상 끝까지 유효함
4. 신자의 죄도 여전히 율법 위반이다
5. 그 나라가 온 땅을 채울 것이다

> **마태복음 27:51**
> 성전 휘장이 찢어짐: 의식법 성취의 표지
>
>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 **마태복음 21:43**
>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짐: 예언상 결정적 진술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 **베드로전서 2:9-10**
> 새 나라는 교회임을 밝힘
>
>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마태복음 22:37-39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영원한 도덕법의 요약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일서 3:4

신자에게도 죄는 법을 어기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니엘 2:35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움: 나라의 최종 완성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요한계시록 11: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태복음 25:41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율법의 최종 정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 6. 율법과 은혜: 두 가지 거짓된 견해

로이드 존스는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구원이 율법 준수에 달려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의의 규범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혼동하는 데서 생긴다.

첫째 오류는 거짓된 율법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면 구원받는다”며 율법을 주셨다는 생각인데, 로이드 존스는 이를 우스꽝스럽다고 본다. 아무도 율법으로 자기를 구할 수 없다. 율법은 약속이 있은 지 430년 뒤에 범죄 때문에 더해졌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와 죄의 악함을 드러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초등교사다. 그러니 율법에도 은혜와 복음이 가득하다. 제사를 이교 의식으로 설명하는 구약 비평가들은 이 은혜를 부정하는 셈이다. 그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류는 거짓된 은혜관, 곧 반율법주의다. “은혜 아래 있으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태도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로이드 존스는 성결을 '받아야 할 체험'으로 보는 견해도 치명적 오류라고 경고한다. 성결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받았다는 '은혜'가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리적 체험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1. 신자는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
2. 그러나 의의 규범에서 풀려난 것은 아니다
3.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4.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초등교사다
5. 은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선물이다

> **갈라디아서 3:17**
> 율법은 약속 후 430년 뒤에 옴: 율법이 구원 수단이 아님
>
>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 **갈라디아서 3:19**
>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24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5:40

제사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 비평가들에 대한 반박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로마서 6:1-2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율법주의 거부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요한복음 14:21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은혜와 순종은 분리할 수 없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은혜의 모든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7. 19절,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백성

그래서 주님은 19절을 이어서 말씀하신다.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반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이 주님과 삼 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영원하고 영속적인 말씀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같은 요구를 다시 강조한다.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십계명과 도덕법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속적 속죄를 요약한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율법에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완전히 굴복시키셨고, 모든 예표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구속의 목적은 반역자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데 있다. 곧 율법을 즐거워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며,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1. 19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속적 말씀이다
2. 아버지의 뜻은 곧 도덕법이다
3.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전히 굴복하셨다
4. 구속의 목적은 용서와 그리스도 닮음이다
5. 성결은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 **마태복음 5:19**
>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
>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 **마태복음 7:21**
>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감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20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다음 논의의 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름: 구속받은 사람의 모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취(완전하게 함)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던 것을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루셔서 그 목적을 다 채우신 일이다.

모형(예표)

구약의 제사, 성전, 제사장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준 그림자다.

의식법

제사, 정결, 성전 예식에 관한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전부 성취되었다.

민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사회법으로, 그 나라가 교회로

십계명과 두 큰 계명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정한 법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관계다.

반율법주의(도덕률 폐기론)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은 상관없다며 죄짓는 삶을 정당화하는 태도다.

대속적 속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죄를 해결하신 일이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그리스도는 예언과 율법을 폐하지 않고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남김없이 이루셨다.
- 십자가는 율법이 정한 죽음의 형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행된 사건이다. 율법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른다.
- 의식법과 민법은 성취되어 끝났지만 도덕법은 오늘도 신자에게 의의 규범이다.
-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오류와 은혜를 핑계로 율법을 버리는 오류는 둘 다 거짓이다.
- 구속의 목적은 용서에 그치지 않는다. 성령으로 율법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